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워크숍

백제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의의와 향후 과제

2015. 7. 9

일시 ■ 2015년 7월 9일(목), 15:00
장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주최 ■ 충남연구원
주관 ■ 충남연구원

프로그램

행 사 순 서	행 사 내 용	시 간
개 회 식	개회사 :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사회 : 최영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5:00~15:10
주 제 발 표		15:10~16:30
제1주제	백제문화유산의 가치와 유네스코 등재 의의 발 표 : 노중국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추진위원장)	
제2주제	충청남도의 백제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계획 발 표 : 박경구 (충청남도 문화재과 과장)	
제3주제	경주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사례 발 표 : 김규호 (경주대 관광레저학과 교수)	
휴 식		16:30~16:40
총 합 토 론	좌 장 :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박재용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남학연구팀 책임연구원) 유기준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 교수)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문화유적학과 교수) 이동주 (백제고도문화재단 고도유산부 책임연구원) 김경태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부장)	16:40~17:40
총 합 정 리		17:40~18:00
폐 회	저 녁 식 사	18:00

목차

■ 주제 발표

제1주제 : 백제문화유산의 가치와 유네스코 등재 의의

1

노중국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추진위원장)

제2주제 : 충청남도의 백제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계획

19

박경구 (충청남도 문화재과 과장)

제3주제 :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사례

31

김규호 (경주대학교 관광레저학과 교수)

■ 토론

토론 1 : 박재용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남학연구팀 책임연구원)

토론 2 : 유기준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교수)

토론 3 :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토론 4 : 이동주 (백제고도문화재단 고도유산부 책임연구원)

토론 5 : 김경태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부장)

1. 백제문화유산의 가치와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의

노 중 국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추진위원장

I.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

백제가 남긴 유산 가운데 웅진 및 사비도읍기의 유산은 수도였거나 부도였던 공주, 부여, 익산에 남아 있다. 충청남도는 1994년 9월 무령왕릉만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하였다가 2010년 1월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로 확장하여 잠정목록으로 다시 등재하였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2010년 1월 익산역사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익산 지역의 백제유산을 잠정목록으로 등재하였다. 이처럼 처음에는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은 공주와 부여의 유산만을,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익산의 유산만을 각각 등재하려고 준비해 왔다.

2011년 1월 문화재청 세계유산위원회는 우선등재추진대상을 선정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때 세계유산위원회는 공주, 부여 유산만 또는 익산 유산만 우선등재추진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등재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판단 아래 세 지역의 백제유산을 합쳐서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우선등재 추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등재추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12월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는 문화재청과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한 MOU를 맺고 2012년 5월 (재)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사무국,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2012년 5월 체제를 갖춘 추진단과 추진위원회에서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백제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해 내고, 백제유산이 가지는 진정성과 완전성을 정리하고, 이 유산을 잘 보호하기 위한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다. 2014년 1월 추진단은 영문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을 통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이후 추진단에서는 실사에 대비하여 2번에 걸친 국내 이코모스 위원들의 예비실사, 외국 이코모스 위원을 초청하여 행한 2차례의 예비실사를 하였다. 그리고 2014년 9월 15~20일에 이코모스의 현지실사를 받았다. 2015년 5월 이코모스는 전체 회의를 열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권고하기로 하였다. 2015년 7월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마침내 세계유산이 되었다. 추진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등재 추진 활동을 벌인 지 만 3년 만에 거둔 쾌거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에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창덕궁과 수원화성이 각각 등재되었다. 2000년 12월에 경주역사유적지구와 고창·화순·강화고인돌이 등재되었다. 2007년 7월 자연유산으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자연 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조선 왕릉이, 2010년에는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안동이 등재되

었고, 2014년에는 남한산성이 등재되었다. 2015년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모두 1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II. 세계유산의 개념과 등재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유네스코(UNESCO)가 197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세계유산협약)에 의하여 유네스코의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발족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문명과 자연유산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하여야 할 세계적 유산으로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유산이 복합된 복합유산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의 세 개 영역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표 II-1] 세계문화유산의 3영역

구 분	내 용
기념물	◦ 건축물 기념적 의미를 갖고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건조물군	◦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과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치로부터 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유적지	◦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2. 세계유산의 등재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10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 (i)부터 기준 (vi)까지 문화유산의 등재 기준 6항목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2]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6항목

항목	세부 내용
i	◦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ii	◦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 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줘야 한다
iii	◦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iv	◦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v	◦ 문화 또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정주지, 토지의 이용 또는 해양의 이용이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vi	◦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외에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 완전성(integrity)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유산구역(property zone)과 완충구역(buffer zone)의 설정이 법적·행정적으로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Ⅲ.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1.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규명

1) 여덟 개 유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 부여, 익산에 위치한 여덟 개의 유적들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다. 각 지역의 유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주

① 공산성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자 공주의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공산성은 금강과 공산의 자연 지형을 잘 이용하면서 판축 기술로 성벽을 쌓

고 그 안에 왕궁과 기타 건물들, 연못을 만들었다. 산성 안에 왕궁을 만든 것은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평지성과 산성으로 이루어진 한성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후 공산성은 신라시대, 고려시대에도 주요 관방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관방으로 사용되었는데 인조 대왕의 피난을 계기로 쌍수산성으로 불렸다. 이처럼 공산성은 백제 이후에도 각 왕조의 주요 관방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공산성이 가지는 특징인 것이다.

② 송산리고분군

송산리고분군은 백제 왕실의 능묘 공간이다. 금강 남쪽의 송산에 위치한 이 고분군은 하여 왕궁이 있는 공산성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곳에 있다. 송산리고분군은 계곡 서쪽에 무령왕릉, 5~6호분·29호분이, 동북쪽에 1~4호분과 7~8호분이 분포한다. 이 가운데 무령왕릉과 6호분은 전축분이고 나머지는 횡혈식석실분이다. 횡혈식 석실분은 천정 모양이 궁륭상이며, 한성도읍기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전축분은 중국 양나라의 전축분을 받아들여 만든 것이다.

무령왕릉은 묘지석에 의해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이라는 사실, 축조 연대가 526년이라는 사실, 발굴을 통해 내부 구조가 볼트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혀 도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장품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고대동아시아 제왕 무덤 가운데 유일한 사례이다.

(2) 부여

①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백제는 538년에 공주에서 오늘날 부여인 사비로 천도하였다. 사비는 백마강이 휘감아 돌고 동쪽은 나성에 의해 방어되는 입지였다. 사비도성은 중국 도성제를 받아들여 도성 안은 5부-5항이라는 계획적인 도시 계획을 하였다.

통치 공간은 시가지 중심에서 북쪽에 위치한 관북리의 왕궁과 부소산성으로 이루어졌다. 왕궁을 평지에 두고 배후에 산성을 쌓아 평시에는 후원으로, 유사시에는 피난성으로 사용하였다. 관북리 유적에는 35m x 11m의 대형전각 건물지, 목곽고, 석곽고, 연못 등이 확인되었다. 판축기법으로 축조된 부소산성 안에서는 병영지, 창고 시설 등이 발굴되었다.

② 정립사지

사비도성에서 신앙 공간으로 세워진 것이 정립사이다. 정립사는 남북으로 뻗은 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그 남쪽에는 궁남지가 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정립사지 오층석탑의 탑신에는 660년 8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새긴 ‘대당평백제국비명’이 있다. 이 비명은 이 오층 석탑이 백제 당시에 세워졌음을 말해준다. 발굴 결과

중문-탑-금당-강당이 일직선 상에 위치하고 승방과 회랑이 둘러싸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중국 북위의 수도인 낙양성의 영녕사에서 나온 유물과 형태가 유사한 토용을 포함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기단은 기와를 쌓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③ 능산리고분군

사비도읍기에 오면 도성을 둘러싸는 나성이 만들어지면서 능묘 공간은 나성밖에 위치하게 되었다. 부여 동나성 밖의 능산리에 위치한 능산리고분이 있다. 이 고분들은 발굴되기 전에 도굴되었지만 고분군 서쪽 절터[능사]에서 발견된 유물들에 의해 사비시대 백제 왕실 무덤임이 분명하게 되었다. 현재 능산리고분군에는 7기의 고분이 복원, 정비되어 있다. 고분의 내부 구조는 모두 횡혈식 석실분이다. 이 가운데 5기의 현실은 단면 6각형의 구조이다. 중하층의 현실 천정은 볼트형인데 무령왕릉의 구조를 이은 것이다. 동하층은 현실의 네벽과 천정을 각각 한 매의 판석으로 만든 구조인데 네 벽에는 사신도를, 천정에는 연화문도를 그렸다.

④ 나성

나성은 도성의 외곽에 성을 쌓아 도성의 내외를 구별하면서 방어적 기능도 가졌다. 백제가 나성을 만든 것은 사비도성이 처음이다. 중국의 나성이 평지에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사비나성은 서남쪽은 백마강을 자연적인 해자로 활용하고, 북쪽 및 동쪽으로는 산의 지형을 이용하여 성을 쌓아 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발굴 결과 사비나성은 관측기법으로 축조되었으며, 저습지에는 부엽공법을 활용하였다. 또 중심에 토루를 단단하게 쌓고 밖에 석벽을 만든 토심석축 기법도 확인되었고, 성벽 둘에는 궁토(궁토), 부토, 백호 등의 문자가 새겨진 경우도 있었다. 538년 무렵에 완성된 부여 나성은 백제 당시의 외곽성의 전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유일한 예이다.

(3) 익산

① 왕궁리 유적

백제 제30대 무왕(600-641)은 왕권 강화와 남방 지역에 대한 확고한 장악을 위해 익산에 부도를 건설하였다. 왕궁리 유적은 높게 조성된 대지 위에 위치해 있는데 발굴을 통해 왕궁임이 증명되었다. 궁성은 직사각형의 공간을 반분하여 앞에는 통치 공간을, 뒤에는 후원을 두었다. 그리고 주변의 자연 경관과 어울리게 물이 흐르거나 형태의 정원을 만들었다. 이 유적에서는 도가니, 송풍관, 금은제품이 발굴된 공방도 발견되었고, 공방 남쪽에는 여러 기의 대형 화장실도 발굴되었다. 이 궁성은 후일 5층 석탑을 가진 사찰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② 미륵사지

미륵사지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사역을 자랑한다. 중문과 일직선으로 세 개의 탑과 금당이 있었고, 각기 긴 회랑으로 구획되어 있다. 북쪽 중앙의 북승방과 강당은 하나로 연결하여 미륵사를 둘러싸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미륵사 창건 설화가 나온다. 가람 배치는 미래의 부처인 미륵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세 번의 설법을 통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불교 경전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원은 9층 목탑과 금당으로, 서원과 동원은 9층 석탑과 금당으로 이루어졌다. 중원은 미륵사의 중심 공간이어서 별도의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규모가 가장 컸다. 붕괴된 동석탑은 발굴에서 확인된 노반석과 서탑을 근거로 9층으로 복원되었다. 불안정하게 일부가 허물어진 상태로 6층까지 남아 있는 서석탑은 더 이상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해체, 복원하는 작업이 행해지고 있다. 서석탑의 해체 과정에서 기단부에서 출토된 사리봉안기는 서원이 639년에 창건되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2)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규명

(1) 백제유산의 특징과 우수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8개의 유산은 통치공간으로서의 왕성 및 외곽성 유적, 정신적인 공간으로서의 사찰 유적, 사후세계로서의 사찰 유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축물에는 당시 이 건축물을 만들게 한 사람들의 사상이 깃들여 있고, 이러한 건축물을 만든 장인들의 기술과 정성이 담겨 있다.

백제는 사비로 천도하면서 평지인 관북리에 왕궁을 만들고 뒤의 부소산에 산성을 쌓았다. 부소산성은 평시에는 후원의 역할을 하면서 유사시에는 피난성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평지성+산성의 왕성구조는 한성도읍기의 전통을 이은 특징을 갖는다.

백제가 사비나성을 축조한 것은 중국의 도성제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러나 중국의 나성이 평지에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사비나성은 백마강을 자연해자로 하고 산과 계곡을 따라 성벽을 축조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공주 공산성 역시 금강과 공산의 자연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왕성을 만들었다. 자연 지형을 잘 활용하여 왕성과 나성을 만든 것은 백제 도성 축조의 특징이다.

중국의 나성은 북위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지만 현재 발굴에서 확인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마저 많이 파괴된 상태이다. 그러나 부여나성은 백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538년에 만들어진 부여나성은 현재 남아있는 고대동아시아 나성 가운데 당시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중국의 도성제를 받아들여 전반부에는 전각 건물을, 후반부에는 후원을 조성하였다. 이를 전조후원형 궁궐이라 한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익산 왕궁의 모습은 당시 동아시아의 전조후원형 궁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왕궁과 도성 건설에는 다양한 기법의 토목, 건축 기술이 적용되었다. 공산성과

부소산성과 부여나성은 성벽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관축공법을 사용하였다. 사비나성의 경우 저습지 등 연약 지반에는 부엽공법을 사용하여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다. 중심 토루를 만들고 그 바깥에 돌을 덧대어 방어력을 강화한 토심석축공법은 웅진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백제가 창안한 독특한 축성방법이다.

사찰 건축에서 보여주는 백제의 우수한 문화는 석탑 건축과 기단 건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륵사지 탑은 목제탑을 석재로 변용하여 만든 최초의 탑이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만들어진 것이 정림사지 오층석탑이다. 미륵사지 석탑은 목조탑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정림사지 석탑은 비례미와 정제미를 갖춘 대표적인 탑이다. 이 두 탑은 백제의 빼어난 석조 기술을 잘 보여준다.

백제가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석탑은 신라에 전해졌고 이 석탑 조영 전통은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져 한국 탑과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다. 한국의 석탑 문화는 중국의 ‘전탑 문화’와 일본의 ‘목탑 문화’와 크게 대비된다. 그 시작이 바로 미륵사 석탑과 정림사 석탑인 것이다.

정림사지는 중문-탑-금당-강당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가람구조이다. 이를 일탑-일금당식 가람배치라고 한다. 가장 전형적인 일탑-일금당식의 가람배치로 이루어진 정림사는 이후 한반도 및 일본열도의 가람배치의 토대가 되었다.

미륵사지는 3탑-3금당의 가람배치이다. 이 삼탑-삼금당의 가람배치는 융화삼회를 표현한 것이다. 고대동아시아에서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삼탑-삼금당의 가람배치는 미륵사지가 유일하다.

백제는 사찰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기와를 수평으로 쌓거나 합장형으로 쌓거나 하여 모양을 내었다. 이를 와적 기단 기법이라고 한다. 이 와적 기단은 왕궁의 기단에도 사용되었지만 주로 사찰의 기단 장식에 많이 사용되었다. 기와를 이용하여 기단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와적 기단 기법은 백제가 창안해낸 것이다.

백제는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에서 보듯이 중국의 전축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전축분은 백제에서 유행하지 못하고 사비로 천도한 후에는 소멸되었다. 반면에 횡혈식 석실분의 전통은 사비시대에도 이어졌다. 무덤의 현실은 잘 다듬은 판석을 사용하였으며 내부 구조는 종래의 궁륭상 천정에서 단면 육각형의 구조를 바뀌었다. 단면 육각형의 구조는 안정되면서도 아름다운 구조이다.

(2) 고대동아시아에서 문화 교류를 잘 보여주는 백제유산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이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그리고 이 수준 높은 문물을 신라, 가야, 왜 등에 전해주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백제는 한성도읍기에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 불교는 웅진도읍기를 거쳐 사비도읍기에 크게 성행하였다. <<주서>> 백제전에 백제에 승니와

사탑이 많았다는 기록이 이를 잘 말해준다.

신라는 초기에는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라가 불교를 공인할 때 백제 불교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신라는 불교 공인 후 최초로 사찰을 건립하면서 백제의 흥륜사를 본받아 사찰 이름을 흥륜사라 하고 여기에 미륵불을 주불로 모셨다. 그리고 신라가 황룡사 구층목탑을 만들 때 백제는 장인 아버지를 파견해 목탑 건립을 주도하게 하였다. 한편 경주에서 출토되는 기와에는 백제식 기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백제가 창안한 석탑 문화를 받아들여 통일 이후에는 석탑 문화를 크게 성행시켰다. 이러한 사실들은 백제의 불교가 신라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백제는 538년에 왜에 불교를 전해주었다. 이로부터 왜에서 불교가 신앙되기 시작하였다. 불교를 전하면서 백제는 승려를 비롯하여 사찰과 탑 및 기와를 만드는 기술자들도 왜에 파견하였다. 그 결과 왜의 불교 신앙과 불교문화, 불교 건축은 백제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최초의 사찰인 비조사가 백제 승려와 장인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 사천왕사를 발굴한 결과 탑-금당-강당을 일직선상에 일탑-일금당-가람구조라는 사실 등이 이를 보여준다. 일본 산전사 금당 기단에 보이는 와적 기단은 백제는 창안한 와적 기단 기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야의 경우 고아동 벽화분은 볼트형의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연도와 현실 전체를 회를 바른 후 연화문 등 벽화를 그렸다. 고아동 벽화분의 재질은 비록 석재이지만 볼트형의 천장 구조는 무령왕릉의 것을 본받은 것이고, 현실 내부를 모두 회로 바른 것은 공주 금학동 1호분을 본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가야 불교가 백제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백제는 판축 기법, 부엽공법, 토심석축공법 등 선진기술도 왜에 전해 주었다. 왜의 저수지 가운데 축조 연대가 가장 빠른 대판부 협산지의 제방을 발굴한 결과 부엽공법이 확인되었다. 큐슈의 수성이나 연성도 발굴 결과 백제의 판축 및 부엽 공법이 확인되었다. 이는 백제의 건축, 토목 기술이 왜에 전해져 왜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였음을 증명해 준다.

한편 용진도읍기를 거쳐 사비도읍기에 크게 성행한 백제의 황혈식 석실분은 일본 열도에 전파되어 유행하였다. 그 내부 구조는 백제가 사비도읍기에 창안한 단면육각형의 구조이다. 또 일본열도에서 장례 때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로 만든 벽주 건물은 무령왕과 왕비의 빈전인 공주 정지산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의 능묘 축조 기술과 장례 문화가 왜에 전파된 것을 보여준다.

무령왕릉에서는 108종 4,600여 점의 유물이 온전히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중국산 도자기와 오수전 및 묘지석을 묻는 풍습과 진묘수, 그리고 벽돌로 만든 볼트형 전축분 등은 중국의 장례 문화가 백제에 전해진 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산 금송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은 왜와 백제와의 교류를 보여준다. 한편 동남아시아산 구슬은 백제가 중국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직접적이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교섭과 교류를 하였음을 증명해준다. 무령왕릉의 유물은 백제가 문화교류의 강국임을 잘 보여준다.

송산리 6호분에는 네 벽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능산리 동하총에는 네 벽에

사신도가, 천청에는 연화문도가 그려져 있다. 고분에 벽화를 그리는 것은 남조의 고분 벽화 문화의 영향이다. 그러나 남조의 벽화는 벽돌로 구워 조립한 형식이지만 송산리 6호분의 경우 벽화를 그릴 곳에 회를 바르고 그 위에 사신도를 그렸다. 이러한 기법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맥을 같이 한다. 또 잘 물갈이한 돌의 벽면에 벽화를 그린 동하층의 벽화는 고구려의 강서 대묘의 사신도의 수법과 일치한다. 이 벽화들은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 교류의 일단을 보여준다.

백제는 중국의 궁성제를 받아들여 왕궁리에 전조후원형의 궁궐을 만들었다. 발굴 결과 왕궁리 후원에서는 연못과 정자 및 도수로가 확인되었다. 백제의 원지 문화는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궁원 문화의 원류가 되었다. 따라서 왕궁리 별궁 모습은 5~7세기 동아시아에서 궁궐의 내부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며 동시에 백제와 중국, 백제와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궁원 문화의 교류를 물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3) 비교 연구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면 그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시기를 같이 하거나 성격을 같이 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경주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하여 중국의 고대 고구려왕국의 수도와 묘지 및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일본 고도 나라의 문화재,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이다.

한국의 “경주역사지구”는 2000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 기준은 (ii)(iii)이다. 이 유적은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불교 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궁궐터인 월성지구, 왕과 왕비, 귀족들의 무덤 분포지역인 대릉원지구, 사찰 지역인 황룡사지구, 방어시설인 명활산성지구이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왕궁, 산성, 고분, 사찰과 같은 특징을 갖는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백제유산과 유사하다. 그러나 유적 중 절반 이상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다 몇 세기 늦다.

중국의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는 2004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 기준은 (i)(ii)(iii)(iv)(v)이다. 이 유적은 고구려시대의 3개 도시와 40기의 무덤 (14기 왕릉과 26기 귀족릉)으로 이루어졌다. 3개의 도시는 시기,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르게 세워진 도시계획의 예를 보여준다. 고구려 매장 형태를 나타내는 무덤들은 특별한 건축 및 토목기술과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왕도에는 나성이 없고 정신 공간으로서의 사찰도 없어 백제 유산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발전된 체계는 아니다.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은 2004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 기준은 (i)(ii)(iii)(iv)이다. 이 유적은 벽화고분 16기를 포함한 63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평양직할시, 남포시, 평안남도, 황해도에 걸쳐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고구려인들의 생활양식, 토속신앙, 정교한 건축 공법을 보여주는 고구려 문화의 걸작으로 일본 등 이웃 나라의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 유적

은 모두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왕궁, 방어시설, 사찰, 고분으로 이루어진 백제역사 유적지구와는 다르다.

일본의 “고도 나라의 문화재”는 1998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 기준은 (ii)(iii)(iv)(v)이다. 이 유산은 고도 나라에 있는 8개의 유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개는 불교 사원이고, 하나는 신도 사원, 하나는 궁적, 하나는 원시림이다. 백제보다 늦게 조성된 수도이다. 불교 사원은 백제의 영향을 받았으며, 왕도 건설은 중국 당 나라의 수도를 모델로 하였다.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는 2013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 기준은 (ii)(iii)이다. 이 유적은 고려 왕조(918-1392)의 수도를 고분들과 함께 보여준다. 이 유적은 만월대, 개성 첨성대, 개성 성곽, 개성 남대문, 고려 성균관, 송양서원, 선죽교와 표충사, 왕건릉, 명릉, 공민왕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유적은 도시, 왕궁, 고분의 풍수적 배치, 성벽과 성문의 도시방어 시스템, 교육 시설을 통한 불교에서 유교철학으로의 변화 등 고려 왕조의 수도가 지닌 정치, 철학, 정신적 가치를 내포한다.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서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은 백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도시계획은 개성보다 훨씬 이른 단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 유적이다.

2. 완전성과 진정성의 규명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그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완전성과 진정성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유산이 가지는 완전성과 진정성은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항목이라 할 수 있다.

1) 완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말하는 완전성에서 말하는 완전성의 핵심 단어는 ‘총체성’, ‘완결성’, ‘위해요소부재’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 웅진 사비 시기의 왕궁, 고분, 산성, 사찰 유적들을 포함하며 그 당시 도시계획, 왕실의 생활상, 상장의례, 종교적 신념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신청 유산의 단위 유적들은 전체로서의 유산이 지녀야 할 필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 유적들은 수도의 역사적 기능과 그 환경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유산에는 고려시대에 진행된 정림사지의 재건과 활용, 조선 왕조에 의한 공산성과 부소산성의 활용과 시설들의 보강 및 재건과 같은 후대 왕조들에 의한 도시의 발전을 나타내는 유적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백제 시대의 유적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많은 백제고분들은 발굴 조사 이전에 도굴되었다. 부소산성 북문 주변 취수장은 시각적으로 경관에 영향을 주고, 관북리 유적 내에는 4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는

통제 가능한 대상이다. 이 유적지들은 개발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진정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말하는 진정성은 유산의 속성이 잠재적으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잘 반영하였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유산은 그들의 문화적 가치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믿을만하게 표출된다면 진정성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여덟 유적의 대부분의 요소들은 각각 다른 정도로 수리와 복원과 같은 인간의 개입으로 영향을 받는다. 공산성에는 조선시대의 성벽 구간이 시멘트를 포함한 방수 재질로 포장되어 있다. 발굴 조사 후 왕궁지와 고분들은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하게 복토되었다. 발굴 후에 고분들의 봉분은 재건되었으며, 잔디를 식재하였다.

정림사지에는 강당지 위에 백제 시대의 형태와 일치하지 않지만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보호각 내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미륵사지 동탑은 전통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원형으로 재건되었다. 그러나 원자재는 일부만 남아 있다. 서탑은 전통 석재 건축 기술을 사용하여 보수되고 있다. 입지 및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는 조망은 현대식 건물에 의해 방해 받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진정성이 높다.

3. 보존 관리 계획 수립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면 유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유산 구역과 완충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신청 유산의 경계는 성곽의 외곽선과 지형적 경계를 따른다. 완충경계는 지형적 경계, 길, 도로를 따르며 명확하게 인식 가능하다. 산성과 고분의 경우 그와 관련이 있는 지형과 경관을 포함한다. 완충 구역은 유산 구역을 둘러싸는 500미터와 고도보존육성법에 의한 특별보존 지구보다 넓은 구역을 포함한다.

신청유산은 모두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호조례 아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신청유산 유적들은 보존 상태의 평가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목록이 작성되어 있다.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는 왕궁리 유적과 공산성에서 진행 중이다.

신청 유산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아래 구성된 세 지역 주민협의를 조직하는 주민협의회를 통한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의견과 함께 백제역사 유적지구 통합관리단에 의해 관리된다. 각 자치단체 아래 설립된 세계유산관련 주민협의회는 보존, 관리, 활용, 홍보, 주민참여의 역할을 한다. 또 세 지역에 대한 책임 기관들을 통합하기 위해 통합관리계획안이 마련되었다.

4.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등재기준 6개 항목 가운데 한 항목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웅진 및 사비도읍기 백제의 왕궁, 왕릉, 산성, 사찰 유적이며, 각 지역의 지형적 특징과 관계가 있는 유산이다. 이 유산은 고대동아시아에서의 교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6개의 항목 가운데 기준 (ii)와 기준 (iii)을 충족하고 있다. 이를 압축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기준 (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에 진행된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가져온 교류를 보여준다.
- 기준 (i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수도의 입지 선정, 불교 사찰, 고분, 건축물의 특징과 석탑들은 백제의 독특한 문화, 종교, 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 완전성과 진정성: 신청유산의 단위 유적들은 전체로서 유산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 또는 방치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청유산의 여덟 유적의 모든 요소들은 수리와 복원과 같은 인간의 개입으로 영향을 받는데 자재와 기술들은 주로 전통을 따랐기에 고분과 사찰은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보존 관리: 신청유산은 모두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호조례 아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아래 유산의 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 보호된다. 완충구역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8m이상 고도제한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신청유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단에 의해 관리된다. 그리고 통합관리보존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IV. 백제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의

1. 지자체와 세 도시의 관점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백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충남도, 전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는 문화재청과 MOU를 맺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추진단을 만들고 여기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학예사를 뽑아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다. 추진단 산하의 추진위원회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들과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OUV 도출과 진정성·완전성의 확보, 보존관리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였다. 각

지자체의 해당 공무원들은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공해 주었다. 시민단체에서도 이 사업의 목적에 찬동하여 스스로 유적을 관리하고 유산의 가치를 홍보하는데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마침내 등재라는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번 등재는 백제 유산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보존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려는 5개 지자체와 시도민과 시군민의 의지가 이루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여덟 개 유산은 5개 지자체에 나누어져 있다. 또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과 세계유산이 지향하는 이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대상 유적의 선정에서부터 부작용이나 갈등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제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세계유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5개 지자체가 마음을 하나로 하게 되었다. 지역을 달리하고, 문화를 달리하는 5개 지자체가 백제 유산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였다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하여 12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개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연속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것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세계유산의 등재는 연속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대세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지자체들이 관계하게 된다. 여러 지자체가 관계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갈등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이는 사업의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이를 잘 극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통합 관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또한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세계유산이 되면 유산의 격이 크게 격상되기 마련이다. 이는 유산이 위치한 지역민들로 하여금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자긍심은 자연스럽게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는 홍보 대사가 되게 하고 자율적으로 유산을 잘 관리하는 파수꾼이 되게 할 것이다.

세계유산이 되면 세계유산이 소재한 도시의 브랜드가 크게 높아진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공주, 부여, 익산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공주, 부여, 익산의 브랜드 격상은 찾아가고 싶은 도시로 세계인에게 각인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 유산을 보기 위해 오는 세계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 이는 지역 사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 학문적인 관점에서

백제유산은 이제 온 인류가 아끼고 보호하고 자랑하는 세계인의 유산이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의 근본 목적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이 유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 길길이 전세계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이제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이 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제 모든 관리, 보존, 연구가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백제 유산 보존·관리는 종래에 지자체별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통합관리단이 설치되었다. 그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유산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유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삼국의 문화 가운데 신라 유산은 1995년에 ‘석굴암과 불국사’가, 2000년에 ‘경주역사유적지’가 세계유산으로 각각 등재되었다. 고구려 유산은 2004년에 중국에 있는 것이 ‘고구려의 도성과 귀족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산은 ‘고구려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백제 유산이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삼국 문화 모두가 명실상부한 세계유산이 되었다. 이는 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백제의 역사는 서울에 수도를 둔 한성도읍기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백제 유산은 서울시와 송파구의 준비 부족으로 공주·부여·익산과 함께 등재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백제사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의 백제 유산이 세계유산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백제의 유산이 세계유산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서울의 백제유산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앞으로 서울시와 송파구의 노력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3. 앞으로의 과제

세계유산은 보존이 원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관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통합관리단에서는 백제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 계획을 세워 지자체와 협조 하에 이를 실천해야 한다.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여 유적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각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관리단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갖추어 주어야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보호, 관리 대책도 함께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연도별 예산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관리단과 지자체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보호,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매개로 5개 지자체가 일체감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문화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5개 지자체의 광역시도민, 시군민, 시민단체들이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하고, 관람하고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자라나는 후속 세대들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 백제학회를 비롯하여 공주, 부여, 익산에 위치한 박물관, 전시관, 대학, 연구소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연구와 보존 관리에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세계유산과의 유대 관계, 특히 일본의 세계유산인 고대 나라의 문화재와 잠정목록에 등재된 아스카 후지하라와 아직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남조의 건강성, 북위 낙양성 등의 유산과의 비교 연구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충청남도의 백제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계획

박 경 구 ■ 충청남도 문화재과 과장

충청남도 백제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계획



20150709

문화재과장 박 경 구

I. 백제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 현황

1.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 개발

2.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3.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4. 역사 문화 도시 조성

5. 고도 이미지 찾기

1.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994 ~ 2010(17년간)
- 사업비 : 2조 4,662억원
 - 재원 : 국비 7,149억원, 지방비 6,940억원, 민자 10,573억원
- 1993. 6. 11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대통령령)
- 2010 말 : 백제문화단지 개발사업 공공부문 준공
- 2010 말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해제
- ◇ 국비지원사업 완료, 민자부문 지속 추진
- ※ 세계유산(충남 6개지구 : 839억원 투입)
 - 공산성(167), 송산리고분군(107), 부소산성(137), 나성(95)
관북리(147), 정림사지(186억원)
 - 백제역사재현단지 5,194억원(국 1,709 지2,011 민자 1,474)

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사업 개요

- 대상 : 국가지정 문화재(총 195건)
 - 국보(27), 보물(108), 사적(49), 명승(3), 중요무형(8) 등
- 2014년 추진실적
 - 대 상 : 82개사업
 - 사업비 : 219억원(국비 153, 도비 33, 시군비 33)
- 2015년 추진계획
 - 대 상 : 108개사업
 - 사업비 : 269억원(국비 187, 도비 41, 시군비 41)
 - 내 용 : 발굴조사, 문화재 보수 및 복원정비
- ◇ 매년 200~300억원 규모의 사업 지속

3.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 사업 개요

○ 대 상 : 고도보존법상 4개고도

- 공주, 부여 (※ 전국 4개 시군 : 전북 익산, 경북 경주)

○ 사업비 : 4,434억원(공주 1,867, 부여 2,567)

- 재 원 : 국비 2,020억원, 지방비 865억원, 민자 1,549억원

○ 사업기간 : 2012 ~ 2021(10년, 매 5년단위 재검토)

○ 그동안 추진실적

- '07 ~ '08년 고도 기초조사(문화재청), 고도보존사업 용역(공주, 부여)

- 기투자액 : 438억원(공주 95, 부여 343)

○ 2015년 추진계획

- 대 상 :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나성(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 사업비 : 101억원(공주 38, 부여 63억원)

4.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 사업 개요

○ 대 상 : 공주, 부여, 경주, 전주 4개지역

○ 사업비 : 1조 2,577억원(국비 4,002, 지방비 5,018, 민자 3,557)

○ 기 간 : 2009년 ~ 2030년(22년)

- '06 ~ '36(30년) 경주역사문화도시, '07 ~ '26(20년) 전주전통문화도시 지원

- 대 상 : 7개분야 57개 사업

○ 그동안 추진실적

- '09 ~ '14년 : 396억원 지원(광특 198, 시군비 198)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비 : 44억원(지특 22, 시군비 22)

※ 공주(24억원) : 시가지 경관 개선, 부여(20억원) : 백강로 정비사업

5.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 사업 개요

- 대 상 : 공주, 부여, 경주, 익산 4개고도
- 사업비 : 229억원(국비 160, 지방비 69)
- 기 간 : 2015년 ~ 2018년(4년)
 - 근거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 2
- 2015년 추진계획
- '15년 사업비 : 57억원(국비 40 도비 5 시군 12)
 - 공주시 28.5억원, 부여군 28.5억원
- 사업내용 : 한옥신축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및 담장, 간판 등 가로경관 개선사업 추진
- 위 치 : 공주시 금성동, 반죽동, 중동 등 고도지구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쌍북리 등 일원 고도지구

고도이미지 찾기 지원기준

<주거환경 개선>

○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
- 근생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

○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
- 근생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

○ 한옥을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 근생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 근생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고도이미지 찾기 지원기준

<가로경관 개선>

○ 지원기준

- 담장, 대문 : 총 시설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 간판시설 : 설치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백만원

○ 지원절차

건축 양식 및 건축규모 등 결정 ➡ 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 / 공사착공
준공 및 보조금 지급

II.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백제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계획

1. 이코모스 권고사항 이행

2. 백제문화 가치증대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4. 세계문화유산 정비

5. 주민중심 활동 및 소득증대

6. 세계유산 추가 등재 추진

1. 이코모스 권고사항 이행

□ 권고사항

- 통합 관광관리계획 및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 수립 시행
- 공주 송산리·부여 능산리 등 고분안에 있는 벽화상태와 내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 조정(5년→3년)

□ 등재신청시 약속사항

- 등재유적 보호를 위한 지구 내 사유토지의 공공관리(관북리 등)
- 유적의 탁월한 보편적가치 보존을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
- (충남·전북) 연속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통합관리기구 설치

2. 백제문화 가치증대

□ 유산의 가치 증대를 위한 지속적 연구 및 활용

○ 백제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콘텐츠 확충

- 역사문화연구원을 백제학의 본산으로 육성
- 국내외 백제 연구자의 네트워크 허브화

□ 도립도서관(17년 완공)에 백제 아카이브, 자료관 설치

○ 백제에 관한 모든 자료 집대성, 연구 기초자료로 공개·활용

□ 유네스코 등재와 연계 백제문화제를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 육성

- 유네스코와 연계된 콘텐츠를 발굴, 백제문화제에 접목 역량축적
- 도 중심의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특별한 의미 부여 계기)

예시)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백제문화제 제70주년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 목표

○ 고도(古都) 이미지 회복

- 핵심유적 정비 복원을 통한 백제고도조성

○ 고품격 역사문화도시로 재생

- 문화유적 활용제고를 통한 관광자원화

□ 사업개요

○ 대상시군 : 공주, 부여 (※ 전북 익산 등 3개 시군)

○ 총사업비 : 8천억 ~ 1조원 (공주, 부여 각 4천~5천억원)

○ 사업내용

- 백제왕도 주요공간구조와 핵심시설 복원 정비 등 골격회복
-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주민 관련 사업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 그간 추진상황

○ 2014. 3월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 정비사업 추진계획(안)수립

- 전문가 자문, 공간구조 및 핵심시설 복원 · 정비(안) 수립

○ 2014. 12월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 정비사업 협약체결

- 문화재청, 충남도, 공주시, 부여군, 전북도, 익산시

○ 2015. 3 ~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 정비사업 준비단』 구성 · 운영

- 문화재청 소속, 충남(공주, 부여), 전북(익산) 참여

□ 앞으로 계획

○ 백제왕도 복원 ·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 2016년 말 까지

○ 문화유산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수립 : 2016년 말 까지

○ 백제왕도 복원 · 정비사업 실행 : 2017년부터

4. 세계문화유산 정비

-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정비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유지관리
- 엄격한 보호 관리
 - ⇒ 통합관리체계, 사유토지매입, 발굴조사 등 역사유적 정비
(연간 600억 ~ 700억원 투자)
- 유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
- 관람자 시각 중심 정비

5. 주민중심 활동 및 소득 증대

- 지역주민과 참여통로 마련 및 자긍심 제고
세계유산관리 주민협의회, 주민자치 조직 등

안정적인 생활 및 정주여건 개선
 - 보상 및 이주지원, 안내·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 일자리
백제양식 주택 신·개축 지원 등
- ⇒ 주민 참여를 통한 등재효과 거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6. 세계유산 추가등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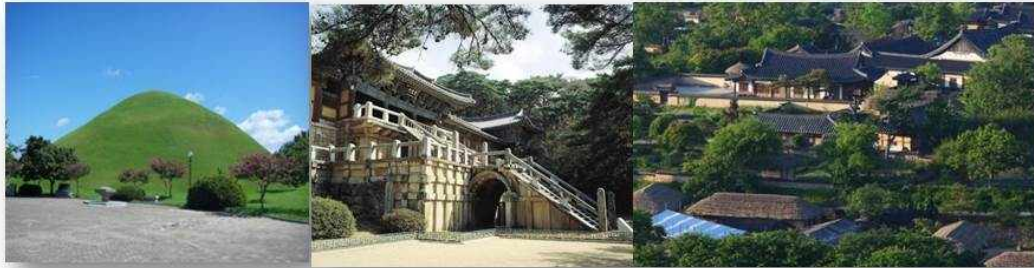
- 지역내 주요 유산에 대한 등재 추진
 - 우리도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 및 정리
- 등재 추진 중
 - 한국의 서원(논산 돈암서원), 한국의 전통산사(공주 마곡사), 서남해안 갯벌(서천 유부도), 외암마을(아산 외암마을)
- 등재 추진검토
 - 천주교 전래·순교 유적

감사합니다.

3.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사례

김 규 호 ■ 경주대 관광레저학과 교수

경주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관리와 활용



2015. 7. 9

경주대학교

김 규 호

1

》》》발 표 순 서

- I 문화유산 관리와 활용의 의의
- II 관광성향변화와 문화유산관리에 대한 논의
- III 경주지역 세계유산관리 실태
- IV 문화유산의 활용
- V 결론 및 시사점

1. 문화유산 관리와 활용의 의의

■ 문화경제학적 관점

- 문화의 경제적 가치 증가

■ 경제 및 문화자본 증가

- 문화 관광수요 변화

■ 문화관광

- 문화경제의 주요 활동

■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 제고
- 장소적 매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1. 문화유산 관리와 활용의 의의

■ 문화경제 논리 반영

- 문화기관의 시장논리 도입
-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
- 문화적 요소 상품화

■ 탈근대적 관광

- 관광경험의 차별화, 개성화 추구
- 문화생산 및 소비활동 인식변화

■ 문화유산 활용의 의의

- 문화중개자 역할
- 현재와 과거의 가교
- 현재 맥락 속에서 이해와 감동부여



1. 문화유산 관리와 활용의 의의

■ 문화유산 마케팅 전략

- 방문계층별 차별화
- 문화유산과 관광시장요소 조화
- 방문객 편의성과 문화유산 매력제고

■ 문화유산 관리

- 문화유산과 지역사회의 상호의존적 관계

■ 문화유산 정비 및 복원

- 역사문화의 재해석
- 도시공간의 정체성과 매력확보
- 관광자원화에 의한 지역문화 및 경제 활성화

■ 문화유산 정비 및 복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

- 원형보존과 활용문제 대두
- 문화유산관리정책 인식전환 필요



5

II. 관광성향변화와 문화유산관리에 대한 논의

관광성향변화

■ 탈근대관광의 특성

- 이미지와 진정성에 대한 경험의 차별화
- 문화자본 증가에 의한 배타적 소비형태

■ 문화자본(장미혜, 2001)

- 소비형태의 차별화 : 경제자본+문화자본
- 문화소비성향 및 능력결정
- 문화관광 수요결정(김사현, 2007)

■ 문화자본에 의한 장소적 속성(Richard, 1996)

- 문화소비 및 투자유치를 위한 상징적 자본으로 인식



6

Ⅲ. 관광성향변화와 문화유산관리에 대한 논의

관광성향변화

■ 탈근대사회의 문화양식변화(원승룡, 김종현, 2001)

-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영역 경계가 허물어짐
→ 문화다원주의와 혼성모방(pastiche) 등장
- 순수 창조보다 재생산된 문화
- 원본과 복제 구분이 무의미한 simulacre 시대(Baudrillard)
- hyper-reality: simulation과 reality 간 implosion
- 모방에 대한 기호가 탈근대관광의 본질(Bruner, 1977)
- 탈근대관광: 관람자와 출연자 경계가 모호(야마시다 신지, 1997)



7

Ⅲ. 관광성향변화와 문화유산관리에 대한 논의

관광성향변화

■ 탈근대관광

- 환상과 실재혼합→시간과 공간을 허무는 가상실재 등장(Nuryanti, 1996)
- 목적지 이미지의 조직적 생산과 공급(야마시다 신지, 1997)
→ 관광경험은 聖과 俗, 眞과 僞를 초월하여 접근
- 非 관광성향을 갖는 post-tourism 현상 등장(김사현, 1997)
→ simulation의 외형적 기호가 주는 이미지 선호
→ 상업주의에 순응하여 진짜 같은 가짜 선호
→ 제도화된 관광과 대량관광 혐오

■ 탈근대관광의 실존적 진정성(Wang, 2000)

- 가짜인 관광대상물에서 진정성 추구 가능
- 신라 왕경 핵심유적에 대한 현대적 관점의 재해석



8

III. 관광성향변화와 문화유산관리에 대한 논의

관광시각의 진정성

■ 무대화된 진정성(MacCannell, 1976)

- 관광객은 진정성 추구
- 무대화된 속성에 의해 진정성 경험을 방해 받음

■ 관광의 부정적 평가

- 관광의 상업적 속성
→ 고급문화 체험기회 확대(원승룡, 김종헌, 2001)

■ 진정성에 대한 인식변화(Cohen, 1988)

- Disney World
- 문화주의 : 문화와 경제의 상호관계(원승룡, 김종헌, 2001)
- 관광에 의한 문화의 상품화, 진정성 상실 문제 발생
→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비대칭관계
- 관광객 관점의 진정성 인식 필요(김사현, 2007)

9

III. 관광성향변화와 문화유산관리에 대한 논의

관광시각의 진정성

■ Authenticity의 구분

- 이분법 접근(Cole, 2007)
→ 진정성 : pre-modern
→ 비진정성 : modern
- 진정성은 관광경험 단계별 연속체로 존재(Cohen, 1988)

■ Authenticity의 유형

- cool / hot authenticity(Selwyn, 1996)
- objective / constructive / existential authenticity(Wang, 2000)
- creative / reactive customized authenticity(Wang, 2007)

■ 실존적 진정성

- 관광대상물의 진정성보다 관광에 의한 존재상태 몰입
- 관광객이 주관적, 간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존재의식

10

III. 관광성향변화와 문화유산관리에 대한 논의

관광시각의 진정성

■ 관광경험의 존재론적 진정성(Wang, 2000)

- 가짜인 관광대상물에서도 진정성 존재
- 관광객 자신의 고유한 자아 또는 간주관적 진정성 추구
- 관광에 의한 진정성 경험은 상품소비와 공급과 동일
- 경제적 관점에서 관광은 진정성 산업
- 실존적 진정성 : 상품 또는 상품화된 경험

■ 진정성에 대한 인식전환

- 관광에 의한 문화의 상품화 : 문화의 재창조
- decontextualization
- 관광객의 판단(Steiner & Reisinger, 2006)
- cultural tradition



11

III. 관광성향변화와 문화유산관리에 대한 논의

문화유산 복원에 대한 관점

■ 긍정적 관점

- 교과서 역할
- 국가적 자부심, 재사용, 교육 및 연구, 관광진흥, 현장보전

■ 부정적 관점

- 물리적 근거부재
- 국가적 자부심과 관광, 교육에 부정적 영향
- 과거역사 멸실
- 진정성 결여



12

Ⅲ. 관광성향변화와 문화유산관리에 대한 논의

문화유산 복원에 대한 관점

■ 문화유산 복원 및 보존과 관련한 용어(전봉희, 2006)

- 복원(reconstruction), 수복(restoration)
보존(conservation), 용도변경(rehabilitation)
재건(re-creation), 복제(replication)

■ 복원의 의미

- 특정시기 모습 재현을 위해 제한된 범위 내 제거/보충 → 복원(復元)
- 특정 시기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신축을 통해 재현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복원 → 재건(再建)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 → 재건에 의한 관광자원개발 의미로 접근



13

Ⅲ. 관광성향변화와 문화유산관리에 대한 논의

문화유산 관리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 탈근대 관광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수요변화

- 보존중심의 문화유산 관리정책 전환

■ 문화유산의 활용

- 활용에 의한 문화유산의 생명력 확보
- 전문가 중심에서 관광객들의 이해와 접근성 제고
- 지역의 문화생산과 소비활동 촉진 기회



14

Ⅲ.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실태

1. 세계유산관광 동향분석

1-1. 세계유산 개요

■ 세계유산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
-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으로 분류

■ 세계유산 등재기준 (1)

구분	기준 (사례)
문화유산	I •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블로렌스코이성당]
	III •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V •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15

Ⅲ.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실태

1. 세계유산관광 동향분석

1-1. 세계유산 개요

■ 세계유산 등재기준 (2)

구분	기준 (사례)
자연유산	VIII •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 · 화산섬]
	IX •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 · 식물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X •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공통	•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자료 :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http://www.unesco.or.kr/heritage/>]

16

Ⅲ.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실태

1. 세계유산관광 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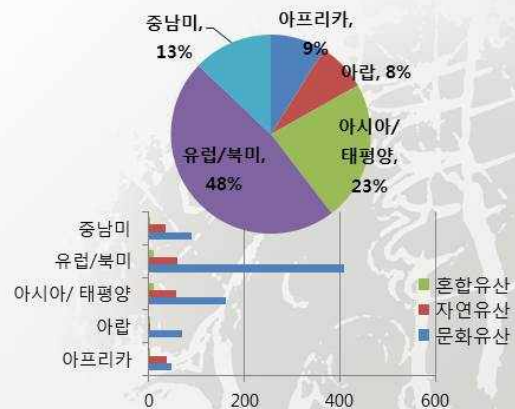
1-2. 세계유산 현황

■ 세계유산 현황

- 전 세계 161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1007점 (2014년 6월 현재)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 이 가운데 문화유산 779점, 자연유산 197점, 복합유산 31점으로 집계
-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191개국 (2014년 7월 기준)

■ 대륙별 세계유산 현황 (2015)

대륙	문화유산	자연유산	혼합유산	전체	비율 (%)	유산등재 국가
아프리카	48	37	4	89	9%	33
아랍	71	4	2	77	8%	18
아시아/태평양	161	59	11	231	23%	34
유럽/북미	408	61	10	479	48%	50
중남미	91	36	4	131	13%	26
전체	779	197	31	1007	100%	161



17

Ⅲ.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실태

1. 세계유산관광 동향분석

1-3. 세계유산 등재효과

■ 세계유산 등재효과

- ① **등록의 이점** -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
- ② **소유권 행사** - 해당 유산의 소유권이나 관리는 이전과 변화가 없으며, 당사국 국내법 적용
- ③ **국제협력 및 지원** - 저개발 국가의 경우, 세계유산기금 및 세계유산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 관련 기구를 통해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
- ④ **등록된 유산의 보존과 관리** - 지역 공동체 및 국가의 자긍심 고취, 보유 유산의 가치 재인식 → 유산 훼손 방지 및 보존에 기여

■ 세계유산의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 효과

- 세계유산 등재로 국제적인 지명도 상승 →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기회 및 수입 증가
- 세계유산으로 등재,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 → 지역 발전에 도움

18

Ⅲ.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실태

1. 세계유산관광 동향분석

■ 한국의 세계유산

-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10점, 자연유산 1점으로 총 11점이 등재되어 있음
- 백제역사지구 등재 : 12점

세계유산	위치	등재연도	등재기준	요약
해인사 장경판전	 경상남도 함천군	1995년	iv, vi	13세기에 제작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목판 보관용 건축물
종묘	 서울시	1995년	iv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
석굴암 · 불국사	 경상북도 경주시	1995년	i, iv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불교 유적으로, 석굴암은 불상을 모신 석굴이며, 불국사는 사찰 건축물
창덕궁	 서울시	1997년	ii, iii, iv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 시대의 궁궐
수원화성	 경기도 수원시	1997년	ii, iii	경기도 수원에 있는 조선 시대의 성곽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0년	iii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 만들어진 선사시대 거석 기념물로 무덤의 일종

19

Ⅲ.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실태

1. 세계유산관광 동향분석

1-4. 한국의 세계유산

■ 한국의 세계유산

-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10점, 자연유산 1점으로 총 11점이 등재되어 있음

세계유산	위치	등재연도	등재기준	요약
경주역사지구	 경상북도 경주시	2000년	ii, iii	신라 시대의 여러 뛰어난 불교 유적과 생활 유적의 집중 분포 지역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시	2007년	vii, viii	지질학적 특성과 발전 과정 등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자연유산
조선왕릉	 서울시 외	2009년	iii, iv, vi	18개 지역에 흩어져 있고 총 40기에 달하는 조선왕조의 능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경상북도 안동시, 경주시	2010년	iii, iv	14세기~15세기에 조성된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씨족 마을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 성남시 · 하남시 일원	2014년	ii, iv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산지에 축성하여 유사시에는 임시 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건설된 조선시대 산성

20

Ⅲ.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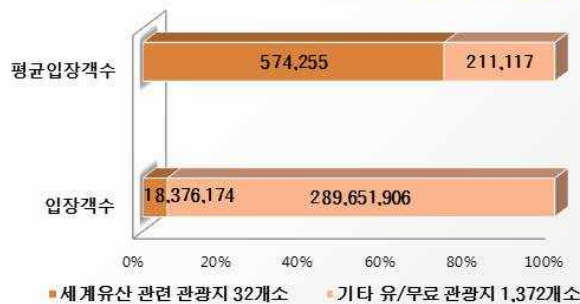
1. 세계유산관광 동향분석

1-4. 한국의 세계유산

■ 한국의 세계유산 이용객 (2014년 기준)

- 세계유산 관련 관광지 32개소 입장객 수 18,376,174명
→ 세계유산 관광지 1개소당 평균 입장객 수 574,255명
- 기타 유/무로 관광지의 평균 입장객 211,117명 대비 세계유산관광지 1개소당 평균 입장객 수가 2.72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됨

세계유산 관련 관광지 입장객수 >>>



세계유산	관광지	입장객수
해인사	가야산국립공원 (해인사)	735,369
장경판전	종묘	309,887
종묘	불국사	2,567,390
석굴암·불국사	석굴암	1,610,233
창덕궁	창덕궁	937,631
수원 화성	수원화성박물관	785,86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화성행궁(남한)	2,270,856
경주역사 유적지구	고창고인돌유적	5,245,926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화순고인돌공원	
	경주 동궁과 월지	
	문황사	
	남산	
	만장굴관광지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태릉/강릉/양릉전시관	
	한릉·인릉	
	선릉·정릉	
	서삼릉	
	서오릉	
	동구릉	
	광릉	
	홍유릉	
	파주삼릉	
	장릉	
	용건릉	
	세종대왕릉	
	단종장릉	
한국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하회마을	1,390,146
남한산성	경주 양동마을	126,238
	남한산성 행궁	
합 계		18,376,174

21

Ⅲ.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실태

2. 경주지역 세계유산 이용실태

2-1. 경주지역 세계유산 현황

■ 석굴암과 불국사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토함산 일원 // 등재연도 : 1995년
- 등재기준 : (i) 한국 고대 불교예술의 정수를 보여 주는 걸작
(iv) 8세기 전후의 통일신라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건축과 조각으로, 고대 한국 사찰 건축의 특출한 예

■ 경주 역사 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5개 지구 // 등재연도 : 2000년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릉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
- 등재기준 : (ii) 불교건축 및 생활문화와 관련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 다수 분포
(iii) 신라 왕실의 역사와 신라 문화의 탁월함을 보여 줌

■ 경주 양동마을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 등재연도 : 2010년
- 등재기준 : (iii) 대표적인 씨족 마을, 조선 유교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줌
(iv) 한반도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조선왕조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음



불국사



대릉원



양동마을

22

III.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실태

2. 경주지역 세계유산 이용실태

주요 관광지별 방문객수

관광지	내/외국인		소계	관광지	내/외국인		소계
경주 동궁과 월지	내국인	1,515,094		불국사	내국인	1,537,005	
	외국인	41,547	1,556,641		외국인	130,493	1,667,498
경주 양동마을	내국인	328,879		석굴암	내국인	857,284	
	외국인	6,114	334,993		외국인	42,608	899,892
경주동궁원	내국인	419,328		신라역사과학관	내국인	104,938	
	외국인	-	419,328		외국인	-	104,938
경주월드	내국인	1,048,759		통일전	내국인	79,265	
	외국인	-	1,048,759		외국인	2,026	81,291
기림사	내국인	58,978		[재]문화엑스포	내국인	307,217	307,217
	외국인	-	58,978	경주 토함산	내국인	202,607	202,607
분황사	내국인	175,249		남산	내국인	538,966	538,966
	외국인	-	175,249	총계		7,396,357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tat.tour.go.kr>).

23

III.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실태

2. 경주지역 세계유산 이용실태

경주지역 관광객 방문 추이

	1995	2000	변화율(%) [95 ~ 00]	2005	변화율(%) [00 ~ 05]	2014	변화율(%) [05 ~ 14]
총방문객 수	13,604,530	12,212,175	-2.1	13,701,838	2.3	7,396,357	-6.6
조사지점	16	18	-	21	-	13	-
조화평균	121,191	94,069	-4.9	99,028	1.0	205,646	8.5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tat.tour.go.kr>).

주: 조화평균
$$H = \frac{n}{\sum_{i=1}^n \frac{1}{x_i}}$$
 [n: 조사지점 수, i: 지역 방문객 수].

24

Ⅲ.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실태

2. 경주지역 세계유산 이용실태

2-2. 경주지역 세계유산 이용실태

■ 경주지역 세계유산 방문객 수 추이

➢ 석굴암과 불국사 [동재연도 : 1995]

- 석굴암 : 2005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감소

→ 매년 방문객 증감률의 편차가 비교적 큼

- 불국사 : 2005년~2014년 세계유산 방문객의 연평균 증가율 0.52%로 완만한 증가세와 더불어 2009년, 2010년을 정점으로 관광객 감소세 두드러짐

→ 세계유산 등재 전·후를 비교하면 등재 직후에 관광객 증가가 현저하나, 이후 꾸준한 관광객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관광목적지의 다양화·관광경험의 개성화 추세 속에 단순관람위주의 유산관광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파악됨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	
관광지		석굴암	불국사
구분		유료	유료
세부구분		측정	측정
내/외국인		방문객	방문객
2005년~2014년	2005년	1,085,654	1,591,749
	2006년	1,317,053	1,820,330
	2007년	1,414,448	1,994,350
	2008년	1,201,143	1,723,566
	2009년	1,694,852	2,950,204
	2010년	1,569,295	3,627,605
	2011년	985,960	1,820,635
	2012년	1,103,347	1,736,496
	2013년	1,051,343	1,659,048
	2014년	899,892	1,667,498
연평균 증가율(%)		-2.06%	0.52%
석굴암	세계유산 등재 전 (1985-1994)	3.84%	
	세계유산 등재 후 (1995-2014)	-6.99%	(1995-2004) -0.93% (2005-2014) -2.06%
불국사	세계유산 등재 전 (1985-1994)	1.95%	
	세계유산 등재 후 (1995-2014)	-4.08%	(1995-2004) -0.19% (2005-2014) 0.52%

25

Ⅲ.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실태

2. 경주지역 세계유산 이용실태

2-2. 경주지역 세계유산 이용실태

■ 경주지역 세계유산 방문객 수 추이

➢ 경주 역사 지구 [동재연도 : 2000]

- 동궁과 월지 : 시내권 관광의 중심지로 최근 동궁과 월지 및 인근 월성의 발굴, 복원에 대한 논의 속에 방문객 증가세 뚜렷(연평균 증가율 16.87%)

- 분황사 : 황룡사지와의 인접성이나 도심권 및 보문권 관광지와와의 연계성을 살리지 못해 관광객 방문율은 답보 상태

➢ 한국의 역사마을 : 양동마을 [동재연도 : 2010]

- 양동마을 : 2010년 세계유산등재 이후 방문객수 급증

→ 유산관광지로서의 자질유지를 위해 세계유산 일대의 꾸준한 관리 필요

세계유산		경주 역사 지구		한국의 역사마을
관광지		동궁과 월지	분황사	경주양동마을
구분		유료	유료	
세부구분		측정	측정	추정 (13년 이후 측정)
내/외국인		방문객	방문객	방문객
2005년~2014년	2005년	382,699	177,758	214,368
	2006년	692,531	177,150	201,591
	2007년	594,871	217,980	257,160
	2008년	879,981	216,191	256,870
	2009년	920,837	196,540	224,821
	2010년	665,481	242,990	415,234
	2011년	463,562	165,452	311,596
	2012년	598,052	192,819	445,919
	2013년	1,540,703	183,617	288,174
	2014년	1,556,641	175,249	334,993
연평균 증가율(%)		16.87%	-0.16%	5.09%
경주 역사 지구	동궁	세계유산 등재 전(1986-1999)	-0.49%	
		세계유산 등재 후(2000-2014)	9.62%	
	분황사	세계유산 등재 전(1986-1999)	-7.66%	
		세계유산 등재 후(2000-2014)	-1.34%	

26

Ⅲ. 경주지역 세계유산관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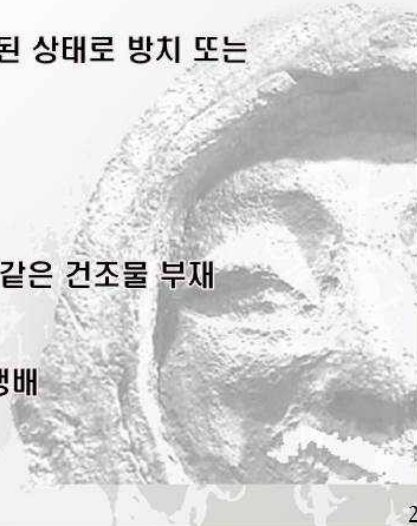
3.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의 문제점

- 왕경지역 문화재 실태

- 왕경지역 내 문화재 : 157점(경주시 전체 306점 중 51.3%)
- 왕궁을 포함한 건조물 유적: 발굴 후 복토된 상태로 방치 또는 발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문화유산 관리의 문제점

- 왕경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부족
- 천년 고도를 상징하는 궁궐, 황룡사 등과 같은 건조물 부재
- 유적발굴에 의한 도심공동화
- 문화재 관리정책에 대한 지역주민 불만 팽배



27

Ⅲ. 경주지역 세계유산관리실태

3. 경주지역 세계유산 관리의 문제점

-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심 및 자원배분 미흡

- 조사 및 발굴, 정비, 복원사업 추진 부진
- 문화유산의 현대적 재해석 부족
- 도시전체 관광 매력 저하

- 사적지와 일상공간의 단절

- 관광객의 역사도시 도심 유입 취약
-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지역경제 기여 미흡

- 관리·운영방법

- 문화유산의 보존중심의 관리정책
- 안내 및 해설체계 미흡



28

IV. 문화유산의 활용

1.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추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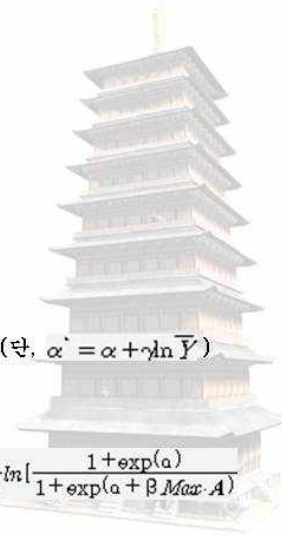
- C V M (contingent value method)
- 보상변이 (CV : compensating variation)에 의한 WTP(willingness to pay)추정

- 분석모델

식(1)
$$p_1 = F_y(\Delta v) = \frac{1}{1 + e^{-\Delta v}} = \frac{1}{1 + e^{-(\alpha + \beta \ln A + \gamma \ln Y)}}$$
 단,

식(2)
$$CV = \int_0^{\infty} F_y(\Delta v) dA = \int_0^{\infty} F_y \frac{1}{1 + e^{-(\alpha' + \beta \ln A)}} dA \quad (\text{단, } \alpha' = \alpha + \gamma \ln \bar{Y})$$

식(5)
$$\text{WTP truncated} = \int_0^{\text{Max} \cdot A} F_y(\Delta v) dA = -\frac{1}{\beta} \ln \left[\frac{1 + \exp(\alpha)}{1 + \exp(\alpha + \beta \text{Max} \cdot A)} \right]$$



29

IV. 문화유산의 활용

1.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왕릉사 복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

왕릉사 복원에 대한 지불의사 응답자의 표본

구분	계	관광객	지역주민
빈도(명, %)	1,661(100.0)	580(34.9)	1,081(65.1)
지불의사비율(명, %)	1,032(62.1)	359(61.9)	1,033(62.3)

분석모형에 대한 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복원에 대한 지불의사(0: 아니오, 1: 예)
설명변수	지불금액: 1단계: 5천원 ~ 2만원, 2단계: 4만원 ~ 8만원, 3단계: 9만원 ~ 11만원, 4단계: 12만원 ~ 15만원
	성별: 0: 남성, 1: 여성
	연령: 15-19세: 1, 20-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세 이상: 6
	학력: 중졸이하: 1, 고졸이하: 2, 전문대졸이하: 3, 대졸이하: 4, 대학원이상: 5
	직업: 직업유무 - 0: 무직(학생, 주부 등), 1: 유직(소득발생 직종)
	월소득: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미만, 3: 200~300만원미만, 4: 300~400만원미만, 5: 400~500만원미만, 6: 500만원 이상
거주지	0: 지역주민, 1: 관광객

30

IV. 문화유산의 활용

1.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황룡사 복원에 대한경제적 가치추정

황룡사 복원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한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S.E.	Wald	Exp[β]	유의확률
황룡사복원에 대한 지불의사 여(1), 부(0)	상수	-0.702167	0.324	4.696	0.496	0.030
	지불금액	-0.000005	0.000	10.037	1.000	0.002
	성	0.161535	0.141	1.308	1.175	0.253
	연령	0.233100	0.059	15.508	1.263	0.000
	학력	0.037286	0.064	0.340	1.038	0.560
	직업	0.031111	0.171	0.033	1.032	0.856
	월소득	0.172755	0.066	6.835	1.189	0.009

단, χ^2 : 46.11, $p < 0.000$, -2LogL : 1209.16



31

IV. 문화유산의 활용

1.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황룡사 복원에 대한경제적 가치추정

지불의사 금액추정을 위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수

구분	경주시 19세 이상 인구 (2007. 2월 기준)	전체 관광객 수 (2006년 기준)	시내권 관광객 수 (2006년 기준)
적용기준	215,992 명	7,493,000 명	451,881 명

주: 시내권 관광객수는 2006년 말 대릉원, 경주임해전지/안압지, 경주첨성대, 분황사,

국립경주박물관의 방문 관광객수의 조화평균임

자료: 경주시, 통계연보(2006), 문화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06)

황룡사 복원에 대한 총지불의사 금액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관 광 객	지 역 주 민	계
총지불의사금액	21,239	10,217	31,456

32

IV. 문화유산의 활용

1.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표본 및 응답율

구분	계	관광객	지역주민
빈도(명, %)	1,742(100.0)	591(33.9)	1,151(66.1)
지불의사비율(명, %)	1,293(74.2)	446(75.5)	847(73.6)

분석모형에 대한 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지불의사(0: 아니오, 1: 예)
설명변수	지불금액 1단계 : 5천원 ~ 2만원, 2단계 : 4만원 ~ 8만원, 3단계 : 9만원 ~ 11만원, 4단계 : 12만원 ~ 15만원
	성별 0: 남성, 1: 여성
	연령 15-19세 : 1, 20 : 2, 30대 : 3, 40대 : 4, 50대 : 5, 60세 이상 : 6
	학력 중졸이하 : 1, 고졸이하 : 2, 전문대졸이하 : 3, 대졸이하 : 4, 대학원이상 : 5
	직업 직업유무 - 0: 무직(학생, 주부 등), 1: 유직(소득발생 직종)
	월소득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미만, 3: 200~300만원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거주지	0 : 지역주민, 1: 관광객

IV. 문화유산의 활용

1.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관광객)

구분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지불금액	-0.00001	0.00000	18.18959	1	0.00002	0.99999
성별	-0.16572	0.21168	0.61287	1	0.43371	0.84728
연령	0.20932	0.12395	2.85213	1	0.09125	1.23284
학력	0.23777	0.10110	5.53140	1	0.01868	1.26842
직업	-0.27072	0.29390	0.84847	1	0.35698	0.76283
월소득	0.09293	0.12712	0.53441	1	0.46476	1.09739
재방문	0.55384	0.43864	1.59418	1	0.20673	1.73991
상수	-0.78424	0.63707	1.51540	1	0.21832	0.45647

Log-likelihood : 542.907, Cox&Snell R² : 0.062

Nagelkerke R² : 0.083, Predicted correct : 62.100

IV. 문화유산의 활용

1.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지역주민)

구분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지불금액	-0.00001	0.00000	14.32441	1	0.00015	0.99999
성 별	0.22293	0.17710	1.58454	1	0.20811	1.24974
연 령	0.08877	0.06867	1.67067	1	0.19617	1.09282
학 력	-0.06504	0.07387	0.77514	1	0.37863	0.93703
직 업	0.15676	0.19560	0.64233	1	0.42287	1.16972
월 소 득	0.12862	0.06981	3.39389	1	0.06544	1.13725
거주기간	0.00123	0.00564	0.04794	1	0.82669	1.00124
상 수	0.17329	0.38560	0.20196	1	0.65315	1.18921

log-likelihood : 906.729, Cox&Snell R² : 0.039
Nagelkerke R² : 0.053 Predicted correct : 64.000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단위: 원)

구분		WTP mean	WTP overallmean	WTP truncated	평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관 광 객	95,734	52,378	66,557	71,556
	지역주민	183,015	87,369	96,816	122,400

IV. 문화유산의 활용

2. 문화유산의 경제적 효과

-사적지 1개소 방문객 수

- 조화평균 : 108,092명(2011년 사적지 18개소 1곳당 방문객 수)

-경주방문 관광객의 1인당 소비지출액

- 조사내용: 경주역사도시조성사업 만족도 조사
- 조사시기: 12. 10. 20-21일
- 1인당 소비지출액: 70,399원

-사적지 1개소당 최종수요

- 76억 956만 8,708원
- [108,092명 × 70,399원 = 7,609,568,708원]



IV. 문화유산의 활용

2. 문화유산의 경제적 효과

-403개 기본부문 중 관광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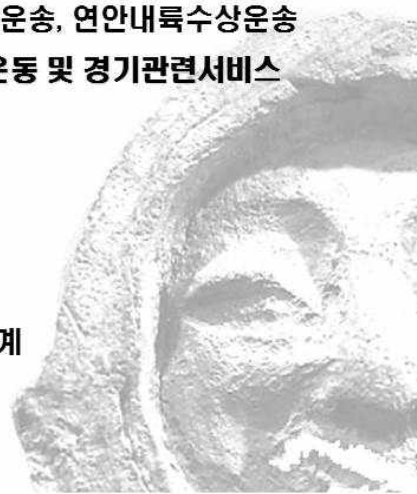
- 소매업, 음식점, 숙박, 철도여객운송, 도로여객운송, 연안내륙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운수관련서비스, 문화서비스, 운동 및 경기관련서비스
기타오락서비스 등 17개 요소산업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 한국은행(2010), 2008년 산업연관연장표
- 산업통합: 14 × 14
- 단순입지계수법에 의한 지역투입계수행렬 주계

$$A^R = QA^N$$

단, A^R : 지역투입계수행렬($k \times k$), A^N : 전국투입계수행렬($k \times k$)
 Q : q_i 를 원소로 하는 대각행렬($k \times k$)



37

IV. 문화유산의 활용

2. 문화유산의 경제적 효과

유산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사적지 1개소 방문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 산출효과 147억 6,400만원
- 고용효과 199명
- 소득효과 26억 300만원
- 부가가치효과 50억 700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산출효과	14,764	10,522	4,241
고용효과(단위: 명)	199	168	31
소득효과	2,603	1,796	806
부가가치효과	5,007	2,900	2,106

38

IV. 문화유산의 활용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

■ 계획 목표

- 신라왕경 골격 복원을 통한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
-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 증진과 적극적 활용기반 구축

■ 계획 기간: 2014 ~ 2025년 (12개년)

■ 총사업비: 16,622억원 - < 국비 11,635, 지방비 4,987 >

■ 추진과제: 황룡사·신라왕궁 등 8개 단위과제



39

IV. 문화유산의 활용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

「월성(신라왕궁)」 복원·정비

■ 목 표

- 신라왕궁 발굴조사, 복원정비를 통해 신라왕경 핵심권역의 역사성과 진정성 회복

■ 사업내용

- 월성 내·외부 발굴조사, 핵심유적 정비 등

■ 사업기간

- 2006 ~ 2025년 (20개년)

■ 사업비

- 6,764억원 (국비 4,735억원/ 지방비 2,029억원)



40

IV. 문화유산의 활용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

「황룡사」 복원·정비

목 표

- 찬란한 신라 불교문화의 정수 재현과 역사성을 갖춘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

사업내용

- 황룡사연구센터 건립, 9층 목탑, 금당 등 복원

사업기간

- 2006 ~ 2025년 (20개년)

사업비

- 6,008억원(국비 4,206억원, 지방비 1,802억원)



41

IV. 문화유산의 활용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목 표

- 동궁의 실체를 밝히고, 본 궁인 월성과 함께 정비하여 신라궁성 본래 모습 재건

사업내용

- 경역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 및 정비, 일부 건물지 복원 등

사업기간

- 2010 ~ 2025년 (16개년)

사업비

- 630억원 (국비 441/ 지방비 189)



42

IV. 문화유산의 활용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

「월정교」 복원

■ 목 표

- 통일신라 최전성기의 궁성 교량 복원을 통한 관광자원 활용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신라 궁성과 왕경의 연결통로인 고대 교량 복원

■ 사업기간

- 2006 ~ 2015년 (10개년)

■ 사업비

- 421억원 (국비 295/ 지방비 126)



43

IV. 문화유산의 활용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

「쪽샘지구」 발굴·정비

■ 목 표

- 신라 고분유적의 체계적 발굴조사 및 정비를 통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 사업내용

- 쪽샘지구 신라고분군 발굴조사 및 정비

■ 사업기간

- 2013 ~ 2025년 (13개년)

■ 사업비

- 1,545억원 (국비 1,082/ 지방비 463)



44

IV. 문화유산의 활용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

대형고분 재발굴·전시

■ 목 표

- 신라고분의 문화재적 가치 재조명, 교육·연구·전시 자료로 활용
→ 고분도시 경주의 역사성 홍보

■ 사업내용

- 대형고분 학술 발굴조사 및 공개 전시

■ 사업기간

- 2014 ~ 2020년 (7개년)

■ 사업비

- 273억원 (국비 191/ 지방비 82)



45

IV. 문화유산의 활용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

「신라 방리제(坊里制)」 발굴·정비

■ 목 표

- 신라왕경 내 공간적 조성체계인 방(坊)의 실체를 확인하고, 고대 계획도시로서의 가치 재조명 및 우수성 홍보

■ 사업내용

- 신라왕경의 도시계획(방리제) 관련 유적 발굴·정비

■ 사업기간

- 2014 ~ 2020년 (7개년)

■ 사업비

- 620억원 (국비 434/ 지방비 186)



46

IV. 문화유산의 활용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목 표

- 주변 발굴 및 심층연구 과정을 거쳐, 관련 유적을 복원·정비하고
신라천문전시관을 건립하여 문화재의 가치 재조명 및 우수성 홍보

사업내용

- 첨성대 주변 발굴 및 심층연구, 천문전시관 건립

사업기간

- 2012 ~ 2020년 (8개년)

사업비

- 361억원 (국비 253/ 지방비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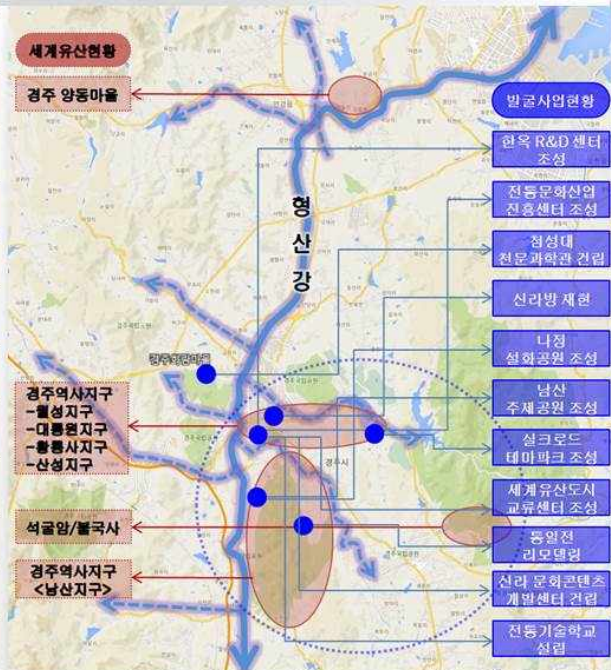


47

IV. 문화유산의 활용

4. 세계유산 활용계획

사업명	위치(안)
1 한옥 R&D 센터 조성	항남동 일원
2 전통문화산업진흥센터 건립	항남동 일원
3 첨성대 천문과학관 건립	석장동 일원
4 신라방 재현	인왕동 일원
5 나정 설화공원 조성	탑 동 일원
6 남산 주제공원 조성	탑 동 일원
7 실크로드 테마파크 조성	천군동 일원
8 세계유산도시 교류센터 건립	항남동 일원
9 통일전 리모델링	남산동 일원
10 신라문화콘텐츠개발센터 건립	항남동 일원
11 전통기술학교 설립	항남동 일원



48

V. 결론 및 시사점

문화유산 관리정책 개선의 필요성

- 문화자본과 문화의 경제적 가치 증가
- 관광경험의 차별화, 개성화 추구
- 문화유산의 가치 및 매력제고
- 지역 및 국가의 관광활성화
- 세계유산지구의 경제활성화

세계유산의 관리방향

- 제도개선에 의한 문화유산관리 자원 확보
- 문화유산의 현대적 재해석에 의한 매력제고
-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에 의한 문화산업 육성
 -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 OSMU, killer contents
- 이야기 만들기 : Alambra궁전(Washington Irving)

49

V. 결론 및 시사점

문화유산관리정책에 대한 인식전환

-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수요 변화
 - 문화유산관리정책 인식전환
- 문화유산활용
 - 보존과 활용의 조화에 의한 문화유산의 생명력 확보
→ Pardo vs 고궁, 양동, 하회마을의 활용
 - 주민생활 공간과 조화에 의한 지역문화 및 경제활성화
 - 전문가 중심에서 관광객들의 이해와 접근성 제고
 - 문화생산과 소비활동촉진 계기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의 문화경제적 관점

- 문화생산과 소비활동 형태로 인식
- 관광소득증대

50



감사합니다.